

“이번 대선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것” 86.9%

51.7%가 “매우 큰 영향 미칠 것”
35.2%는 “어느 정도 영향 있다”
광주·전남 11.5% 부정 응답 최고

제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2026년 치러지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7%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35.2%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전체의 86.9%가 이번 대선이 차기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5.9%와 4.1%로 전체 비인식층은 10%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3.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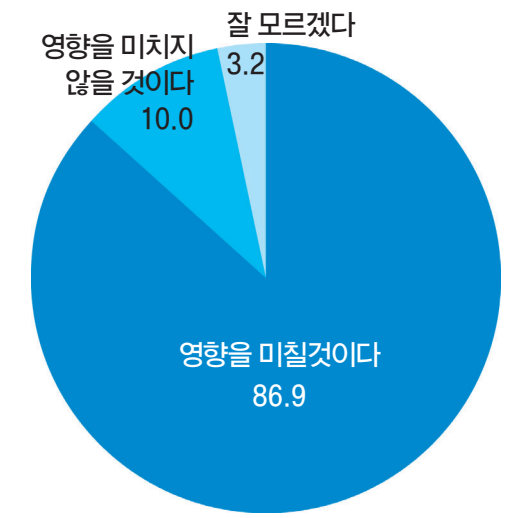
이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지역별 응답률은 제주가 92.3%(매우 크게 60.5%+어느 정도 영향 31.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대전·세종·충청 90.7%, 부산·울산·경남 89.1% 순이었다.

긍정 응답자는 남성(86.6%)보다 여성(86.1%)에서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이들 중 긍정 응답률이 90.3%로 김문수(85.1%), 이준석(81.3%)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보다 높았다. 특히 이 후보 지지자의 긍정 응답 중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율이 56.3%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90.3%, 40대 89%, 60대 88.5%, 18~29세 94.9%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라고 선택한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90.2%로 ‘보수’(85.9%), 중도(86.9%)보다 높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은 91.1%, 국민의힘은 85.1%, 개혁신당은 81.3%, 진보당 95% 조국혁신당 85.1%, 기타

◇ 지방선거에 대한 대선 결과의 영향력
(단위:%)



정당 81.4%, 무당층 78.8%였다.

대선 결과에 따른 지선 영향에 대한 부정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남(11.5%)이었다. 이어 강원·서울(11.1%), 대구·경북(10.9%) 순으로 영향 가능성에 대한 부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6.6%)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2%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6%로 가장 낮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부정 응답률이 23.2%로 전체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했고, 개혁신당(15.7%), 기타정당(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 이념 성향별 부정 응답률은 보수 11%, 중도 10%, 진보 8.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 큰 관심이 없을 수록 부정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1대 대선 투표에 투표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26%가 부정 응답자였다. 사전 투표 혹은 본 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의 부정 응답률은 각 9.7%로 조사됐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선 선상투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가 시작된 26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와 사무실에서 정당 추천위원 입회하에 원양어선 등 선박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를 수합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 절반 “사전투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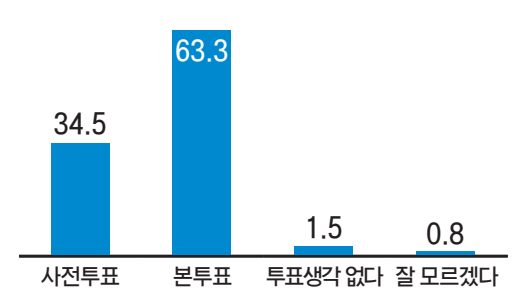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사전 투표에 참여할 의향을 드러냈다.

특히 광주·전남 유권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절반 가량이 사전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투표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사전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34.5%, 본 투표는 63.3%로 집계됐다. 투표하지 않겠다는 1.5%, 잘 모르겠다는 0.8%였다.

광주·전남은 응답자 49.2%가 사전투표 참여 의사를 나타냈는데, 이는 참여의사가 두번째로 높은 지역인 전북(35.3%)보다도 13.9%포인트 높은 수치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았던 사전 투표 참여의

◇ 대선투표 참여 방식 (단위:%)



사는 연령별로 보면 50대(37.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31.3%)보다 남성(37.7%)에서, 진보층(50.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사전 투표

참여의사가 52.5%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13.4%에 불과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83.9%가 본투표를 하겠다고 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6.3%)보다 본투표 참여 의사가 많았다. 두 정당의 지지층의 투표 참여 방식이 극명하게 갈렸다.

본투표 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68.9%)이고 여성(66.3%), 70대 이상(68.9%), 보수층(7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은 본투표 할 것이라는 응답이 60.6%, 사전투표 할 것이라는 응답은 37.9%였다.

에이시리서치는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 행동인 투표율은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선 결과 지방선거 영향 이유는 ‘새 정권 힘 실어주기’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43.6%는 그 영향이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물 중심의 선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33.7%,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16.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4%였다.

이번 조사결과로 보면 다수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셈이다. 아무래도 취임 1년밖에 안된 대통령에게 지방 선거 승리로 정권에 힘을 실어줄 여야 한다는 의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권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보면 대구·경북이 47.8%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은 45%로, 인천·경기(45.6%)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여당이 유

리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여성(40.4%)보다 남성(46.8%)에서 높게 나왔고, 연령별로는 40대가 50.8%로 가장 높았다.

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제주(27.4%)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20.9%), 강원(20.2%)이 뒤를 이었다.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16.3%·16.4%) 수치를 보였고, 20대(20.8%)와 보수(2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층(27.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선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야 유불리를 떠나 인물 중심의 선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전북(45.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여성(34.8%), 60대(41.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7.3%), 중도층(35.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당지지도, 민주 43.1%·국힘 38.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1위를 기록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를 묻는 항목에서 민주당이 4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이 38.5%를 기록하며 정당 지지도 2위를 탈리하며 민주당을 바짝 쫓는 형국이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1.6%), 개혁신당(8.0%), 진보당(1.0%) 순이었으며 ‘지지정당이

없다’가 6%에 달했다.

정당지지도는 각 정당이 대선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눈여겨 보는 부분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민주당 56.3%, 국민의힘 23.4%), 전북(52.1%, 29.0%)을 비롯해 서울(41.4%·38.4%), 인천·경기(46.9%, 36.1%), 대전·세종·충청(44.1%, 38.0%), 제주(49.1%, 29.7%)에서는 민주당이 더 앞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민주당 28.6%, 국민의 힘 57.0%)과 부산·울산·경남(38.6% 40.6%), 강원(37.5%, 41.9%)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더 우세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민주당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 정당 지지도는 60대(민주당 40.6%, 국민의힘 49.3%)와 70대(35.2%, 56.4%)에서는 국민의힘이 1위를 달렸다.

50대 이하에서는 민주당이 앞섰지만 3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와 국민의힘 지지가 각 33.6%, 33.8%로 0.2%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